

## 북동아시아 페스트 발생중 두만강 유역 전염병 예방과 국제협력

# Preventing Infectious Disease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Tumen River Basin During the NorthEast Asian Black Death

Yongzhi Lee<sup>a\*</sup>

<sup>a</sup> *Department of History, University of Yanbian, 977 Gongyuanlu Yanji City, Jilin Province, China*

---

### ABSTRACT

Studies on the North East Asian Black Death have been actively conducted, but the contents of the Yanbian region have been rarely mentione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reventive measures and effects of the pneumonic plague in the Tumen River basin (mainly the present Yanbian region) based on the study of Yanbian region based on the research of researchers related to the North East Asia Black Death. In particular, we will use historical sources to provide a review of mortality level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region, as well as an overview the causes of the pandemic prevention efforts.

---

### KEYWORDS

Tumen River  
Black Death  
Northeast Asia  
International cooperation  
Prevention of infection

---

북동아시아 페스트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었으나, 연변지역의 방역에 관한 내용은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북동아시아 페스트 관련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연변지역 지방사료들을 참고하고 당시 두만강유역(주로 현 연변지역) 페페스트 예방조치와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기존 문헌을 활용하여 사망수치에 대한 검증과 비록 제한적이지만 이 지역에 있었던 국제적 협력에 대해서도 고찰하고 페스트 역병방지에 있어 성과가 있게 된 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

두만강  
흑사병  
동북아시아  
국제협력  
전염병 예방

---

© 2017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All rights reserved

---

\* Corresponding author. Tel. 82-01-5494-6150. Fax. 82-31-450-5187.  
Email. [hy\\_kim76@hanmail.net](mailto:hy_kim76@hanmail.net)  
Tel. 86-0433-273-3575. Email. [yongzhi69@163.com](mailto:yongzhi69@163.com)  
基金項目：延邊大學東亞跨文化發展研究基地建設項目2015年課題

---

### ARTICLE HISTORY

Received Jun. 1, 2017  
Revised Jun. 5, 2017  
Accepted Jun. 30, 2017

## 1. 서론

2003년 “사스”(호흡기성 전염병)가 유행하는 기간 동안 외지에서 오는 학생들은 약 15일 정도의 격리가 있었고 방마다 소독하고 통풍이 잘되게 하였으며 열이 나면 바로 검진하여 입원 후 격리하였다. 이와 같은 전염병 유행은 이미 1910년에도 중국의 동북지역에서 세계를 놀라게 한 전염병사건이 있었다. 1910년 10월 중·러 국경의 작은 도시 만주리에서 첫 병례가 발견되었고 그 후 신속히 전파된 페스트이다. 같은 해 11월에 하얼빈에서 첫 번째 환자가 출현하였으며 12월에 치치할, 장춘으로 퍼졌고, 이듬해 1월에는 지린, 선양, 다이렌, 산해관을 거쳐 텐진, 베이징, 보우딩에 까지 전파되었다. 심지어 발해해협을 넘어 산둥반도에 상륙하였으며 지난과 칭도에까지 영향을 주었다. 페스트가 유행한 수개월동안 전후로 5만여명의 고귀한 생명을 잃었다. 이러한 재난 앞에서 당시 청정부는 적극적인 방역조치를 취하였고 세계 여러 나라들에 협조를 요청하였다. 특히 페스트가 끝나지 않은 시기에 국제페스트회의를 소집하였다. 바로 1911년 4월 3일 봉천(현재 선양)에서 11개 나라에서 온 수십 여명의 의사들이 모여 회의를 개최하였다. 세계역사상 처음으로 개최되는 국제페스트회의였고 중국역사상 처음으로 개최되는 국제과학회의였다.



Fig. 1. Representative group photo of Bongchon International Black Death Conference

1910-1911년 북동아시아 페스트에 관한 연구는 꽤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연변지역의 방역에 관한 내용은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었다. 본 논문은 선행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연변지역 지방사료들을 참고하고 당시 두만강유역(주로 현 연변지역) 페페스트(pneumonic plague) 예방조치와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당안사료를 활용하여 사망수치에 대한 검증과 비록 제한적이지만 이 지역에 있었던 국제적 협력에 대해서도 고찰하고 페스트 역병방지에 있어 성과가 있게 된 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 2. 본론

### 2.1 북동아시아 페스트 발생과 방역조치

#### (1) 페스트의 발생과 전파

1910년10월 북동아시아 중·러 국경지역에서 유행성 페페스트가 발생하여 철로를 따라 신속하게 전파되었으며 중국 동북은 물론하고 화북의 직예, 산둥 등의 지역까지 전파되었다.

이번 페스트는 중·러 국경지역에서 마르모트(旱獭) 사냥을 하던 사냥꾼들 사이에서 발생하였다. 제일 처음으로 보고된 페스트 발생 지역이 만주리여서 이번 페스트 전파의 기점을 만주리로 여긴 것이다. 어찌되었건 이번 페스트가 만주리로부터

하얼빈으로 전파된 후 마치 흐르는 강물처럼 일사천리로 억제할 수 없을 기세로 전파되었다. 모두가 알다시피 하얼빈은 당시 러시아가 경영하는 북만주일대의 중심도시로서 교통이 아주 발달하였다. 하얼빈에서 보고된 첫 병례는 11월 7일이었다. 당시 두 명의 마르모트(旱獭) 사냥꾼이 만주리로부터 하얼빈에 와 착정공구상점에 거주하였다. 그날 저녁 이 두 사람이 모두 페페스트로 사망하였다. 뿐만 아니라 같이 기거하였던 다른 네 사람한테도 전염시켰다. 얼마 후 하얼빈은 페스트 전파의 중심 도시로 되고 말았다. 페페스트는 하얼빈으로부터 만주 중부와 남부에 신속하게 확산되었고 멀리 화북의 직예와 산둥 두 성에 까지 전파되었다. 아래에 몇 몇 중심도시에 나타난 페스트의 발생시간을 도표로 나타내었다.

Table 1. When Black Death Occurs by Region

지점	시간	지점	시간	지점	시간
만주리	1910,10,12	신민부	1911,1,14	길림시(e)	1911,1,16
하얼빈	1910,12,4	영평부(b)	1911,1,15	금주부	1911,1,14
쌍성부	1911,1,5	지불(c)	1911,1,21	천진	1911,1,15
관성자	1910,12,14	치치하얼	1910,12,4	북경	1911,1,12
봉천	1911,1,2	후란하	1910,12,13	제남부	1911,2,1-7

Table 1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찾아 볼 수 있다. 첫째로 제일 빠른 교통망을 따라 폭발적으로 전파되었다. 둘째로 전파노선은 하층 노동자들의 설 쇠러 귀향하는 노선과 완전히 일치하였다. 셋째로 쌍성부는 비록 남으로 하얼빈과 약 30마일밖에 떨어지지 않았고 중동철도선상에 있었지만 하얼빈에서 페스트가 유행하여 거의 2 개월 후에야 첫 번째 병례가 나타났다. 그러나 병례가 나타난 후 거대한 독성을 나타내어 페스트가 유행한 2 개월 사이에 4000여명이 생명을 잃었다. 넷째로 페스트가 파급되지 않은 성진이 있다. 예를 들면 우장, 그리고 화북의 주요한 항구 진황도이다. 우장에서 페스트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겨울에 항구가 얼어 붙었기 때문이고 진황도에서 페스트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다행히도 하층노동자들이 남쪽으로 귀향 시에 이곳을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당산도 재난을 피했고 북경과 천진 역시 거의 재난을 피했다. 다행히도 그 지역에서 겨울에 당시 하층노동자만 고용하였거나 만주에서 귀향하는 하층노동자들이 이 도시들을 지나치고 머물지 않았을 수도 있다.

페스트의 신속한 전파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하얼빈 다음으로 페스트 전파의 중심이 된 장춘은 20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봉천지구는 사람들을 죽음의 공포에 떨게 만들어 관목(棺木)마저 모두 팔려 나갔을 정도였다. 이렇게 페스트가 신속하게 전파되고 유행구역이 넓게 된 데는 주요하게 아래와 같은 원인이 있었다고 본다. 첫째로, 편리한 교통망이 페스트의 신속한 전파에 편리를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러시아와 일본이 중국 동북지역을 경영하면서 편리한 철도교통망을 설립하였다. 중동철도공사와 남만철도주식회사가 동북지구에서 발달한 교통망을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그래서 동북지구는 당시 중국 국내에서 제일 밀집한 철도망을 갖고 있었다. 러시아가 공제하는 중동철도, 일본인이 공제하는 남만철도 외에도 청정부가 자체로 건설하였거나 합자건설한 관내의철도, 안봉철도와 길장철도 등이 있었다. 이러한 근대 교통공구의 편리함은 동북지구 인구의 이동을 신속하게 하였다. 둘째로, 전염원의 대규모적인 이동이 페스트의 전파를 가속화하였다. 이 시기 전염원이라 하면 바로 하남, 산둥 등지에서 동북지구로 온 하층노동자들이다. 동북지구가 봉쇄를 해제한 이래 관내에서 많은 유민이 동북으로 흘러 들어왔다. 또한 러시아와 일본의 동북경영이래 특히 중동철도 등 대형공정의 시작으로 관내지구 빈곤한 농민들이 동북지구로 밀려 들어왔다. 게다가 청정부에서 변방을 개발하여 공고히 하는 "이민실변"정책을 펼치면서 상용한 이민에 대한 우혜정책도 인구유동에 한 몫 했다. 이들 하층민들이 설을 맞으며 대규모적으로 귀향하면서 페스트 전염원이 신속하게 넓은 범위로 확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셋째로, 낙후한 위생조건과 불결한 거주환경도 페스트의 전파를 가속화하였다. 동북지구는 개발이 늦었기로 의료위생조건이 비교적 낙후하였다. 많은 유민이 동북지구로 몰려들면서 의료복무시설이 더욱더 따라가지 못하였다. 이외 당시 동북지구의 전형적인 가옥이나 여관들이 그 바닥은 흙으로 다져졌고 햇빛이 잘 들지 않는 흙으로 지은 단층집이었다. 또한 겨울에는 추위를 막기 위해 창문을 봉하기 때문에 통풍이 잘 되지 않는 상태가 된다. 게다가 동북의 겨울이 아주 추웠으므로 따뜻한 구들에 모여 있기를 즐겨하여 밖으로의 출입을 싫어하였다. 이러한 거주환경이 페스트의 전파를 가속화하였다. 넷째로, 페페스트 역병에 대한 무지한 인식이 페스트 전파를 도왔다. 동북지구의 대부분 사람들이 농촌에서 간단하고 소박한 생활을 하면서 외부세계에 대해 아는 바가 심히 적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고대로부터 내려온 중의학이론기초상의 치료수단을 믿지 현대위생학을 믿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현대적인 페스트 방역조치에

저속심리를 갖고 있었고 그들한테 강제적으로 검사를 하거나 격리조치를 취하기가 아주 어려웠다. 예를 들면 장춘에서 방역사업을 진행할 때 공고를 발부하여 질병의 엄중성을 선전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격리와 소독조치에 복종하라고 호소하였다. 사람들은 이러한 조치를 믿지 않았을 뿐 아니라 수구 한의사들의 반대를 초래하였다. 수구 한의사들은 이러한 질병을 능히 치료할 수 있다고 믿었으며 아무런 예방조치도 취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였다. 결과 9명의 중의가 사망하는 무지한 일이 발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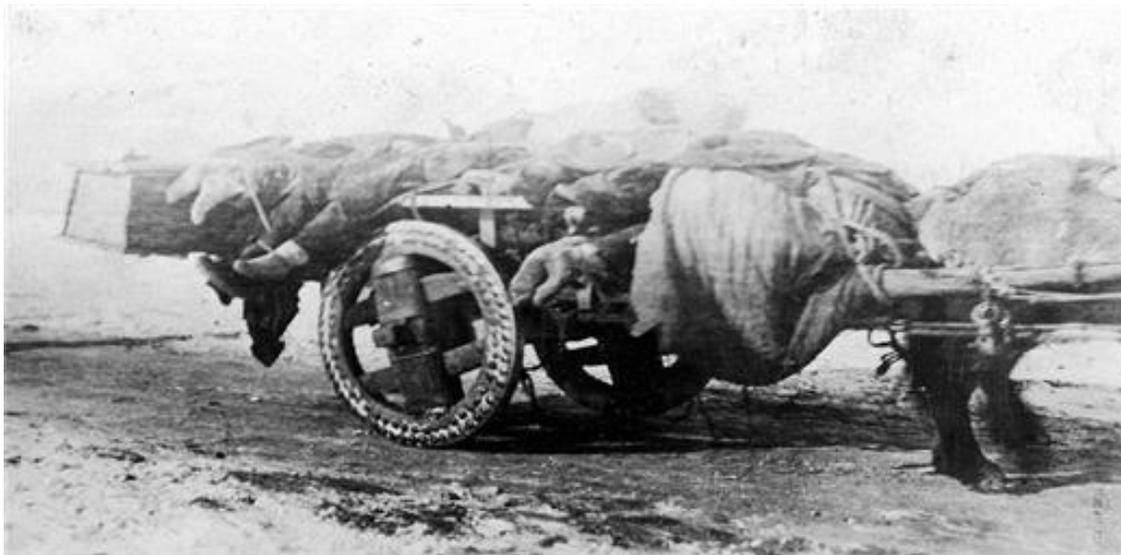


Fig. 2. Carriage of dead bodies

## (2) 동북지구에서의 방역조치

페스트의 신속한 전파와 많은 사람들의 사망은 청정부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청정부는 급히 궁내부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였으며 민정부와 우전부가 연합하여 방역방법을 상의하도록 명령하였다. 군기대신은 여러 차례 직예총독, 동삼성총독에게 영을 내려 방역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동북에서의 방역조치들을 개괄하여 살펴보면 주요하게 네 가지가 있었다. 첫 번째로, 교통 단절조치를 취하였다. 이는 인구 유동을 억제하기 위하여 역병이 발생한 지역과의 교통을 단절함으로써 역병의 확산을 막고자 하였다. 또한 역병이 유행할 때 동북지방정부는 극장, 시장, 교회당과 학교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봉쇄하였다. 둘째로, 위생지식을 보급하였다. 사람들로 하여금 역병의 현 상태와 추세를 인식하게 하고 정부의 방역조치를 따르도록 선전하였다. 방역기관에서 공개적인 강연이나 소책자 발행, 대중 공고 등의 방법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위생지식을 보급하였으며 간단하고도 알기 쉬운 언어로 페스트의 성질을 해석하였다. 길림전성방역총국에서 창간한 <길림방역일보>는 매일 출간되었는데 신문에는 페스트의 소식과 방역조치가 실렸으며 사람들이 경각심을 높이고 자기를 보호하도록 인도하였다. 셋째로 격리역을 건립하였다. 페스트가 유행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예방의 주요 고리를 페스트 전염원인 하층노동자의 유동으로 보았다. 그래서 일찍 페스트 환자와 접촉한 적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격리역을 건립하기 시작하였다. 부가진(傅家甸)과 철도연선지방에서 방역인원들은 열차의 객실을 격리실로 많이 사용하였다. 열차 바구니를 격리실로 사용함에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있었다. 쉽게 열고 이동에 편리하며 꼬리 부분에 침대를 놓 수 있고 통풍과 가열에 편리하다는 점이다. 더우기 열차의 수증기 호스를 차안에 넣고 소독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넷째로, 국제협력이다. 동북지방의 각급 정부는 적극적으로 국제협력을 진행하였는 바 동삼성총독 석량(錫良)과 관동도독부 의사 촌전(村田)이 힘을 합쳐 방역계획을 상의하였으며 촌전(村田)을 청하여 봉천각순경국, 소 인원들에게 페스트의 발생원인 및 예방조치들을 발표하고 쥐를 두려워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게 하였다. 러시아도 하얼빈지방정부와 연합하여 일련의 방역조치를 취하였다. 페스트격리소를 건립하거나 청결차량을 제공한다던지 위생관원을 배치하여 한어와 러시아어로 된 알기 쉬운 간단한 선전수책을 인쇄하여 발행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다. 주목되는 점은 페스트발생시기 많은 외국인 의사들이 중국의 방역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이다. 당시 각지 정부에서는 외국 의사들을 청하여 본 지역의 방역을 협조하게 하였다. 오지리-웡그리아제국 황가육군외과의사 옥뢰아(沃雷爾)는 상해에서 준비한 백신을 사용하여 대련

지구의 외국인 수병과 중국 주민들에게 접종을 진행하였다. 이태리 나블러스(那不勒斯) 황가대학실험병리학 교수 개리오체(盖里奥蒂)는 부가전(傅家甸)지역의 방역사업인원에 대하여 효과적인 훈련과 지도를 진행하였다. 성경의학원의 미국의사결극슨 교수는 황고툰 기차역의 철도방역사업을 책임지었는데 자기의 고귀한 생명을 바쳤다. 이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국제적 인도주의로부터 출발하여 동북지구 전염병 퇴치와 연구사업에 참가하였으며 헌신적인 공헌을 하였다.



Fig. 3. Russian doctors involved in epidemic prevention work

국제협력에 있어 일본이나 러시아 등의 나라들이 자국의 이해관계하에서 세력다툼을 벌이는 등 외교적인 정치투쟁도 깔려 있었다. 우리가 알다시피 갑오중일전쟁후 러시아는 "삼국간섭으로 요동반도를 돌려받다"로 청정부의 호감을 얻었으며 청정부를 구슬려 <중·러밀약>을 체결한다. 러시아는 이 조약을 통하여 중국동북지구에서 중동철도를 건설하는 이익을 획득한다. 중동철도는 러시아 시베리아철도를 연장한 만주리 하이라얼을 거쳐 서북방향에서 동남으로 흑룡강, 길림 두 성을 가로지나 해삼위 블라디보스톡에 이르는 중국동북지역을 관통한 철도이다. 러시아는 중동철도를 통해 북만주일대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였다. 페스트가 발생한 후 러시아 정부는 동북을 침략하는 기회로 삼고 적극적으로 방역에 개입하였다. 하얼빈에서 러시아 조계당국은 페스트의 확산을 방지한다는 미명하에 군사를 파견하여 러시아거민구의 교통요도를 지켰으며 중국 주민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 군대는 만주리에서 검역을 핑계로 변경지역에서 말뚝을 부리고 트집을 잡았다. 점입가경으로 중국주재 러시아공사가 각국 공사들한테 다니면서 페스트가 빠르게 유행되었지만 중국정부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적당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페스트가 러시아의 원동지구로 전염되는 것을 걱정한다. 중국인들이 결빙된 강을 건너 러시아방면으로 도망치면 러시아는 충족한 군대가 없어 변경을 지킬 수 없다. 그러므로 동북지구에 충족된 군대 주둔을 수요한다"고 하였다. 물론 러시아의 거동은 여러 나라 대표들의 불만을 조성하였고 다른 나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였다. 청정부도 러시아의 위협에 대비하여 의술이 발달한 외국 의사를 청해 러시아가 공제하고 있는 부가전(傅家甸)에 보냈으며 대량의 의약품도 보내주었다. 효과적인 조치로 말미암아 부가전(傅家甸)의 전염병 상황은 많이 호전되었으며 러시아의 도발도 잠시 누그러들었다.



Fig. 4. Fu Jiadian disinfection car ready to start

이 시기 일본은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동북지방에 페스트가 유행된 시기를 기회로 여기고 자기들의 세력을 확충하고자 하였다. 러시아와 다르다면 다른 나라 세력이 이 기회에 중국동북지구에 들어와 일본의 세력범위-동북남부지구에서의 "독립왕국" 지위를 깨뜨릴 가 걱정하였다. 그리하여 일본도 일련의 적극적인 방역조치들을 취하였다. 페스트가 장춘에서 유행할 적에 관동도독부와 남만주철도주식회사는 이미 손을 잡고 "연합방역국"을 구성하였으며 주요 기차역부근에 격리구를 설립하고 군대도 증파하였다. "연합방역국"의 총부를 봉천에 세웠으며 안동, 여순, 대련, 우장, 요양, 철령, 장춘 등지에 분국을 설립하였다. "연합방역국"의 성원 중 경찰 인원수가 414명으로 의사 인원수의 6배에 달하였다. 이로부터 알 수 있듯이 "연합방역국"의 조직은 의료조직이라기보다 군사조직이라 함이 타당할 것이다. "연합방역국"은 봉천지방당국에서 진행되는 방역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는 구실로 자기들 맘대로 사람을 파견하여 집집마다 검사할 것을 결정하였다. 비록 봉천당국에 거절을 당하였지만 "연합방역국"의 사업인원들은 여전히 제 맘대로 하였다. 그리고 남만주철도주식회사는 공개적으로 일본의 활동범위는 만주 전체여야 한다고 하면서 만주의 모든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하였다. 일본은 이러한 조직 준비와 여론 조성 외에도 중국정부에 외교적 압력을 가하였다. 봉천주재 일본 총영사는 동삼성총독 석량한테 일본경찰과 중국경찰이 협력하여 중국인 주민집에 가서 방역상황을 검사하도록 하는 사항을 제출하였다. 이에 석량은 중국인 주민에 대한 행정관리권은 중국에 있다고 천명하면서 일본관리 권한 밖에서의 일본경찰의 활동은 환영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렇지만 일본의 간섭과 침투는 계속되었으니 봉천국제페스트회의에서도 그러한 모순과 문제들을 드러냈다. 청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미국과의 협력으로 봉천국제페스트회의는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봉천국제페스트회의를 통해 청정부는 동북지구에 대한 주권소유를 각 국에 보여줬으며 나라의 영토안정을 수호하였다. 물론 일본과 러시아의 중국동북지구에 대한 진일보로 되는 침략을 어느 정도 저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

## 2.2 두만강 유역 페스트 방역조치 및 효과

여기서 두만강유역은 주로 중국 연변지역을 가리킨다. 두만강유역이라고 강조함은 당시 연변지역에 대한 일제의 침략에 대해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었는데 바로 중조국경의 하류로서 방역에 있어서도 하나의 중요한 경계선이었기 때문이다. 1910년 10월에 발생한 페스트 역병이 철로망을 따라 신속히 전파되었으며 하얼빈을 거쳐 점차 부근의 각 현, 진에 전파되었다. 길림신문은 소속 각 현에 전문을 내려 "우선 예방하되 무릇 전염병 유행지역에서 온 여행객을 분리하여 검사하며 교통을 단절하고 소속 각 현에서 방역국이나 검역소를 설립하여 검사, 소독을 실행함으로써 전염병의 침입을 방지하라"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일본과 러시아가 기회를 타 도발 할 것을 우려하여 방역사업에 태만하지 말 것을 각별히 부탁하였다. 이에 연변지방정부에서는 방역총국에서 반포한 장정에 근거하여 방역기구들을 설립하였으며 일련의 방역조치들을 취하였다.

우선 위생방역기구를 설립하였다. 1911년 1월12일 엔지부에 방역국을 설립하고 팽수당이 국장을 임직하였다. 엔지부에서 설립한 첫번째 위생방역사무에 전문 종사하는 기구였다. 그 아래에 진역소, 검역소, 격리소, 피한소, 양병소와 의사(擬似) 병원을 두었으며 7곳에 방역 초소 등 임시방역기구를 설치하였다. 모두 6명의 의관과 55명의 일군을 두었다. 그 전에 1911년 1월 4일,

동남로 병비도에서 동남로 임시방역소를 설립하였다. 동남로 임시방역소에서는 두 곳의 교통요도에 초소를 설치하고 검역을 실시하였다. 그 중 락타와자에 설치한 초소는 녕안에서 오는 길을 차단, 할바령에 설치한 초소는 길림에서 오는 길을 차단했다. 그리고 화룡현 경무소내에 방역국을 설립하였으며 두만강 연안의 교통요도에 방역, 검역분소를 설치하였다. 훈춘청에도 방역국을 설립하였으며 아래에 방역 분 초소를 설치하고 순경이 방역임을 책임지었다. 돈화현에 방역국을 설립한 후 아래에 검역소, 진역소, 피한소를 설치하였다. 돈화현은 연변지역에서 유일하게 페스트역병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지역으로 할바령의 검역행정은 무엇보다도 중요하였다. 이외에도 순진의료대를 조직-방역국 총의관 전용방이 주야를 불문하고 왕진을 다녔다. 연변 각 지역에 방역국을 설립한 후 여러 가지 방역조치를 취하였는바 정리하면 아래와 같은 조치들이 있었다.

첫째, 방역국에서 검역소독, 의료 각항 업무를 전문 책임지었다. 성진의 공공위생은 순경국에서 전문 책임지었으며 지방 상회에서 협조하여 정리하였다. 촌민들을 인도하여 개인위생에 주의하는 업무는 순경분구에서 책임지고 자치회에서 협조하였다. 둘째, 교통을 단절하고 검역소를 설립하였다. 무릇 내왕하는 인원은 반드시 검역소에 5일 체류시킨 후 통과여부를 결정한다. 전염된 마을에 대해서는 물품의 유통과 동물의 왕래를 금지시켰다. 페스트에 감염되어 사망한 사람의 시체에 대해서는 묻을 때 7척 깊이로 하였으며 땅이 얼어 파기 어려울 때 화약사용도 허락하였다. 힘없는 어려운 백성에 한해서는 관가에서 대신 처리해주었다. 셋째, 각지에 널려있는 부관(浮棺) 을 그 자리에 묻되 7척 깊이로 하였다. 물론 이러한 부관(浮棺) 습속은 동북지구에 널리 계승해오던 풍습이어서 도처에서 부관(浮棺) 을 볼 수 있었다. 게다가 사람을 화장하는 법에 저촉심리가 있는 민간인들이 전염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신고하지 않고 부관(浮棺) 으로 혼동케 하는 경향이 있었다. 만약 이러한 부관(浮棺) 을 잘 처리하지 못하면 역병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각 지방의 순경으로 하여금 지역을 나누어 수사하여 무릇 부관(浮棺) 을 만나면 주인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분별하여 널려 있는 부관(浮棺) 을 현지에 파묻도록 하였다. 물론 깊이는 7척으로 하였다. 넷째, 각 지방에서 적극적으로 소독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연길부 방역국에서는 지방에서의 소독예방조치를 고무 격려하였다. 그리하여 역병이 있는 지방에서는 방법을 다하여 소독하고 역병이 없는 지방에서도 청결에 적극 힘쓰도록 하였다. 다섯째, 통속적이고 알기 쉽게 방역규칙을 만들어 주민들이 환경위생에 주의하도록 하였다. 당시 사람들의 위생의식이 부족하였으며 거실환경도 청결치 못하였다. 연길부 방역국에서는 사람들이 위생을 지켜 페스트전염을 예방할데에 관해 여러 가지 선전을 하였다. 예를 들면 《제읍인등 청결위생하여 역기를 방지할데에 관한 규칙》을 공포하여 주민들이 통풍, 청결, 햇빛을 쬐이도록 하였다. 여섯째, 《민인들이 쥐잡이에 나서 온역을 예방할 것을 효유》한다는 포고문을 발표하여 백성들이 쥐잡이에 나서도록 동원하였다. 한 마리의 쥐를 200문에 사들였는바 일본이 폐페스트 역병을 선페스트로 인식하면서 일본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 의사들의 권고로 쥐잡이에 주의력을 집중한 일면이 보인다. 일곱번째, 공공장소에서의 페스트 만연을 방지하고자 식당, 작은 점포들을 일률로 봉쇄하고 손님을 접대하지 못하게 하였다. 동시에 영업을 허가한 목욕탕, 여관, 호텔, 기방 등 공공장소의 관리를 강화하였다. 또한 상용한 방역규정을 제정하였다. 《목욕탕방역규칙》, 《객점방역규칙》, 《술집방역규칙》, 《기생집방역규칙》 등이다. 방역규칙의 제정으로 두만강북안의 방역사업이 질서정연하게 진행되었다. 목욕탕방역규칙을 예로 든다면 매일 개업 전 혹은 문을 닫은 후에는 반드시 청소하여 각별히 청결해야 한다. 목욕시 손님한테 전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목욕전 반드시 목욕탕에서 특별히 설치한 약통에 들어가 소독을 해야 한다. 목욕탕내의 시설이나 세척용품 혹은 도구들은 반드시 청결해야 한다. 목욕탕의 방문이나 벽도 반드시 소독수로 깨끗이 씻어야 하며 먼지가 있어서는 안 된다. 목욕탕내의 공기가 혼탁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 목욕탕에서는 반드시 정상적으로 창문을 열어 환기시켜 실내 공기의 청정을 유지한다. 이렇게 연길부방역국에서 여러 방역규칙을 내놓음으로서 만약 위반하는 자가 있으면 순경국에서 엄하게 처리한다 하였다.

조선총독부에서는 페스트역병이 조선경내로 전파될까 우려하여 연변지구와 조선이 접경한 두만강 선적장을 봉쇄하고 중국인 노동자나 한인노동자의 입경을 엄금하였다. 물론 중국정부에서도 대응조치를 취하였는바 길림동남로 병비도에서는 령을 내려 이러한 하층노동자들이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게 하였다. 예를 들면 연길부에서는 적당한 곳에 널찍한 피한소를 설치하여 이들 하층노동자들을 집중시켜 거주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소독과 감시를 진행함으로써 기근이나 추위로 인한 유랑이나 사망을 예방하였다. 연길부에서는 부르하통하 남안의 공사장 간이집을 수선하여 피한소를 설립하였다. 전임 권학소 소장 동리요(董黎耀)가 소장을 하였다. 연길순경총국에서는 구역에 따라 매 호 수사하였으며 빈고한 노동자가 확실히 직업도 없고 의지할 곳이 없으면 일률로 피한소로 보내 유랑을 피면하게 하였다. 이외 동남로병비도에서 전문을 내려 소속 화룡, 왕청, 돈화 등지에서 이러한 노동자를 발견할 경우 현지 순경국에서 사람을 파견하여 연길부피한소로 보내게 하였다. 또한 피한소내의 질병에 걸린 빈민에 대하여 치료를 실시하기 위해 연길에서는 피한소내에 의사병원(疑似病院)을 개설하고 연길관의원 의원 우제원(于濟源)을 파견하여 의사병원(疑似病院)을 경영관리하게 하였다.



Fig. 5. The medical staff of the epidemic prevention hospital checks the isolated patients

여기서 변경지역으로서의 화룡현의 방역을 살펴본다면 조선과 접경한 화룡현의 방역사업은 특별히 중요하게 보여 진다. "화룡현에 소속된 두만강 연안 300여리 구간에 18곳의 연안요충지가 있다. 일본과 조선상민의 왕래가 끊이지 않으니 만약 조금만 소홀하여 방법에 힘쓰지 않는다면 역병이 변경에 이르게 된다. 그러면 일인들이 기회를 타 우리의 내정을 간섭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는 중대교섭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위기의식속에서 화룡현에서는 현성내에 방역국을 설립하였고 두만강 연안의 각 교통요도에 방역 혹은 검역분소를 설립하여 지나다니는 일체 인원, 물품에 대해 검사를 하고 소독예방을 진행하였다. 화룡현 방역국 국장은 지현(팽수당)이 직접 겸임하였으며 문서 겸 서무는 경무장이 겸임하여 국장의 명령을 집행하거나 방역국 각항 사무를 집행하였다. 그리고 서의 한명이 위생과원을 겸임하였고 중의 한명이 권학원을 겸임하여 방역이나 진역 각항 사무를 분담하였다. 각 방역, 검역분소에 순찰장 한명을 두고 위생경찰 두명을 두어 규장제도에 쫓아 검사를 실행함으로써 전염병 예방을 하였다. 방역조치로는 물론 교통을 차단하여 전염병 발생지역에서 오는 물품이나 동물의 왕래를 금하였을 뿐 아니라 위생순경을 각 향, 촌에 파견하여 백성들이 청결을 지켜 위생에 주의하도록 하게 하였다. 또한 백성들이 귀를 잡는 것을 고무격려 하였다. 이외에 화룡현에 흘러들어 온 하층노동자들을 연결피한소로 보내는 등 방역에 온갖 심혈을 기울였다. 이렇게 연변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방역조치로 말미암아 방역에 일정한 성과들이 있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방역기구의 설치 특히 락타나자와 할바령에 설치한 임시방액소의 설치는 페스트의 전염을 방지하고 공제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 고립원(高立垣) 은 《할바령검역규칙》을 만들어 효과적으로 내왕인원을 통제하였는데 외국인에 대해서도 상응한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유희실, 목욕실, 소독실 등 검역기관과 소독시설까지 설치하였다. 검역기록도 아주 상세하였다. 매일 내왕하는 사람들의 인원수 구체적인 시간, 갖고 다니는 물품, 어떤 이유로 경과하고 경과를 허락한 후 어떤 검역과 소독조치를 취하였는지 등을 상세히 기록하였다. 할바령 방액소에서 지나다니는 사람에 대하여 엄격한 검사를 하는 동시에 내왕하는 말에 대해서도 엄격히 공제하여 연결경내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더우기 각종 관보나 문건까지 소독을 거친 후 통과시켰다. 우정국의 우편물도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상응한 조치를 취하였다. 할바령 방액소에서는 공직인원에 대하여 검역, 소독조치를 취하였을 뿐 아니라 일반 행인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히 공제하였다. 특히 페페스트 유행이 중대했던 장춘, 길림 등지로부터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률로 통행을 금지하였다. 전염병 유행이 점차 완화되자 연변지방정부는 여러 방역기구들을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할바령방액소가 처한 위치가 매우 중요하였기에 잠시 보류하였다. 할바령방액소의 설립은 전염병의 유행을 강력하게 격리시켜 놓았다. 그리하여 페페스트의 연변지역으로의 유행을 효과적으

로 억제하였으며 연변지역의 방역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양호한 외부환경을 만들어 주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변지방정부의 강력한 방역조치로 말미암아 페스트의 만연을 억제하였다. 그리하여 연길, 화룡, 훈춘, 왕청 등의 지구는 무역구(无疫區)로 되었다. 돈화에서 39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 2.3 방역기간 두만강 유역에서의 국제협력

페페스트시기 동북지역에서의 방역사업 국제협력 배경을 놓고 본다면 1910년 12월 25일 청정부에서 특별방역회의를 열고 대신들이 방역방법을 같이 토론하였으며 직예, 동삼성총독으로 하여금 역병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안치토록 요구하였다. 동시에 청나라 조정과 동삼성정부에서 여러 가지 조치를 재빨리 취하였는바 역병을 효과적으로 공제하는데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 각 부, 현에서 주동적으로 혹은 상급의 지시에 따라 방역기구들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동삼성의 의료위생 상황은 낙후하였으며 특히 의학 인재가 결핍하였다. 이에 각 급 정부에서는 우혜 정책을 취하여 대담하게 국내외의 서의 인재를 영입하였다. 물론 본지에서 방역인원을 배양하는 방식도 인재결핍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되었다. 청정부가 국제협력을 진행함에 크게 경계해야 할 두 세력이 있었다. 바로 일본과 러시아이다. 일본은 대련을 중심으로 남만주를 공제하고 있었고 러시아는 하얼빈을 중심으로 북만주를 세력범위로 하고 있었다. 페스트 재난을 인간과 자연재해와의 싸움뿐 아니라 치열한 정치투쟁으로 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정부는 대담히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동시에 일본이나 러시아가 구실을 삼고 중국주권을 침해할까 조심스레 경계하였다. 당시 연변지역은 중, 러, 조 삼국 국경지역으로 일본의 대륙정책에 있어 전략적 지위를 갖고 있는 요충지였다. 연변지방정부 역시 일·러 양국을 경계해야 하는 책임을 깊이 느꼈다. 길림동남로병비도 도운 도빈은 돈화, 액목 등지의 방역정형을 순사할 때 길림순문에게 상주하기를 “근일에 변경에 비록 중대한 교섭이 발생치 않았으나 러시아인들이 올라지보스토르크를 봉쇄하고 일인들이 두만강 연안항로의 부두를 수축하는 거동을 보면 훈춘을 주시하는 바이다”고 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두만강유역에서의 페스트 방역 중 국제협력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다. 동북아의 핵심지대로서 연변 지역의 전략적 지위는 중·일·러 삼국의 관심과 주의를 불러 일으키기에 충족하였다. 일러전쟁 후 일본은 연변지역에 대한 침략을 강화하였는바 일제는 ‘한민보호’를 빌미로 끊임없이 연변지역에 침투하였다. 연변지역의 독특한 지리적 중요성과 일·러의 연변지역에 대한 침투에 중국정부가 심히 경계하면서 국제적 협력을 한 것이다. 연변지방정부는 방역기간 중 연변지구의 서의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인 의사를 초빙하였으며 연변지역의 방역을 협조하게 하였다. 예를 들면 연길 방역국에서 중의를 초빙한 동시에 아주 높은 노임으로 일본인 서의를 초빙한 점이다. 통역도 배치하였다. 그리고 조선총독부에서는 간도총영사관 영룡구길 총영사를 통하여 길림동남로병비도 도운 도빈에게 외교조회를 발송하였는데 두만강 연안에서의 협력을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낚은 면, 옷, 종이 등의 수입과 노동자들의 입국 등을 금지하였으며 붉은 천을 왼팔에 두른 감시인들이 헌병의 감독하에 강 연안을 감시하게 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다. 물론 이러한 조치와 방역소의 설치는 대동소이한 것으로 전염도경을 차단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매체를 통한 페스트 예방지식의 내용 다수는 일본인들이 저술한 것이다. 예를 들면 《방역약언(속)> (防疫約言 (續))》는 판의 川久保志熊, 杉本松正이 저술한 것을 범항 (范恒) 이 번역하여 반포한 것이다. 그리고 《흑사병예방론》은 동경제국대학생 진모 (陳謨) 가 저술한 것이다. 흑사병에 대한 소개와 예방조치들에 대해 간단하게 서술한 책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변지방정부는 페스트 역병예방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일본인 서의를 채용하였으며 방역상식에 관해서도 일인들의 경험이나 의학지식을 인용하였다. 물론 국경지역에서의 외교조회나 협력도 홀시 할 수 없는 내용이라 하겠다.

## 3. 결론

총체적으로 두만강지역의 방역조치 중 시종일관 러시아와 일본의 간섭을 예방하는 일면이 있었지만 제한적인 국제협력이 이루어 졌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연변지역이 편벽한 곳에 위치하였고 의료 위생조건이 낙후하였지만 청정부의 효과적인 방역조치가 있었기에 연변지역은 효과적으로 역병의 전염을 방지하였고 전염병 예방에 있어 귀중한 경험을 쌓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연변지

방정부가 폐페스트 유행시기의 적극적인 방역조치와 의료구조행동은 객관적으로 현지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였다. 동시에 사람들의 폐페스트에 대한 극도의 공포심리를 제거해주었고 폐페스트의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한 <목욕탕규칙>, <객점방역규칙>, <술집방역규칙>등 공공장소에서의 규장관리제도를 계속하여 집행하였다. 연변지방민들이 폐페스트 유행시기에 양성한 위생습관이 보류되었고 연변지역에서의 공공위생환경도 크게 개선되었다. 이번 폐페스트 유행시 정부의 방역조치과정과 결과적인 분석을 통해 우리는 연변지역의 방역이 성공한 원인을 알 수 있다. 첫째로 재난방지에 있어 정부의 과단한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연변지방정부는 방역에 중점을 두고 역병지역과 통하는 교통요도들을 효과적으로 차단한 점이 돋보인다. 할바령의 방역소가 대표적인 예이다. 둘째로 지방정부가 추진한 국제적인 협력이 예상 밖으로 전염병에 대한 인식과 조치에 있어 아주 큰 역할을 하였다고 본다. 특히 일본은 선페스트에 대한 예방과 치료에 있어 적잖은 경험이 있었다. 게다가 그들이 제공한 현대적인 위생방역조치와 서의의 치료방법이 중의의 치료방법보다 더욱 효과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셋째로 전염원의 이동이 적은 것도 주요원인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당시 전염원인 하층노동자들이 연말 귀향으로 신속하고 폭넓게 역병을 전염시켰다면 전염원인 하층노동자들의 고향이 연변지역이 아니었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전염원 이동방향에 연변이 목적이 아니라라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다. 넷째로 당시 연변지역의 교통이 발달하지 못한 점도 전염병 전파에 도움이 되지 못했음을 역설적으로 지적하고 싶다. 할바령이나 낙타나자 등 교통요도를 차단하자 전염병 지역과의 격리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었다는 점이 바로 교통의 미발달로 인한 점이다. 이러한 여건들로 말미암아 연화왕훈지역이 무역지대로 되었고 둔화지방에서만 39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연변지역은 중국동북변강에 위치한 의료조건이 비교적 낙후한 곳이었다. 폐페스트의 유행시 연변지방정부는 적극적으로 유효한 방역조치를 취하였다. 연변지역은 동북아지구의 핵심지대로서 전략적 지위가 중요한 곳이다. 일·러전쟁 후 일본은 더욱더 연변 지구에 대한 침략을 다그쳤다. 폐페스트시기 일본은 대량의 인원을 파견하여 페스트역병을 조사한다는 명의로 연변지역에 대한 조사를 전개하였다. 또한 일본은 거의 동일한 시기에 식민의학 책략을 사용하였다. 연변에 주재한 일본총영사관과 연변지방정부는 의료위생 공계권을 둘러싸고 격렬한 쟁탈을 벌이게 된다. 쌍방의 주도권 다툼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연변지역의 의료위생수준을 제고시킨 점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면에 깔린 일본의 침략을 위한 민심농락과 세력확장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References

- 奉天防疫總局編譯, 《東三省疫事報告書》, 沈陽: 奉天圖書印刷所印刷, 1911
- 延邊州檔案館, 延邊州檔案館館藏清末、民初史料
- 中國科學院歷史研究所主編, 《錫良遺稿奏稿》, 北京: 中華書局, 1959
- 《延吉道概況(初稿)》, 延吉: 延邊州檔案館, 1984
- 吳祿貞, 《延吉邊務報告》, 長春: 吉林文史出版社, 1986
- 徐世昌, 《東三省政略》, 長春: 吉林文史出版社, 1989
- 延邊州衛生局編, 《延邊朝鮮族自治州醫療保健史料匯編》, 延吉: 延邊州檔案館, 1991
- 和龍縣地方志編纂委員會, 《和龍縣志》, 長春: 吉林文史出版社, 1992
- 王學良, 《1910年東北發生鼠疫時中美與日俄間的政治鬥爭》, 《社會科學戰線》, 1992年 第3期
- 延吉市地方志編纂委員會, 《延吉市志》, 北京: 新華出版社, 1994
- 于永敏、劉進、王忠云, 《沈陽萬國鼠疫研究會始末》, 《中國科技史料》第16卷, 1995年 第4期, 64-69頁
- 延邊州地方志編纂委員會, 《延邊朝鮮族自治州志》, 北京: 中華書局, 1996
- 中國第一歷史檔案館, 《清末東北地區爆發鼠疫史料》, 《歷史檔案》, 2005年, 第4期, 20-26頁
- 曹樹基、李玉尚, 《鼠疫: 戰爭與和平》, 濟南: 山東畫報出版社, 2006
- 焦潤明, 《1910-1911年的東北大鼠疫及朝野應對措施》, 《近代史研究》, 2006年, 第3期, 106-124頁
- 胡成, 《東北地區肺鼠疫蔓延期間的主權之爭(1910.11--1911.4)》, 《中國社會歷史評論》, 第9卷, 2008年, 214-232頁
- 國際會議編輯委員會編譯, 張士尊譯, 《奉天國際鼠疫會議報告(1911)》, 北京: 中央編譯出版社, 2010